



성철 스님 “우주는 상주불멸...에너지와 질량은 부증불감”

# ‘중도’ 과학적으로 풀어

성철선사상연구원 13주기 세미나서 양형진 교수 분석

박영준 교수 “불교가 과학에 좌우되는 것 아니다” 논평

스님 열반 13주기를 맞아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1960년대 전후 상황과 성철 스님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고려대 양형진 교수는 논문 '성철 스님 법문에서의 중도와 과학'을 통해 성철 스님의 중도 법문에 나타난 불생불멸, 부증불감, 쌍차쌍조(양변을 떠난 중도)의 중도 원리를 상대성 이론의 등가원리로 다양한 과학적 해석을 시도했다.

양 교수는 우선 "백일법문의 끝수는 <화엄경>의 내용 중 '일체 만법이 나타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나니, 만약 이 법을 알 것 같으면 모든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며 불생불멸에 대한 과학적 논증으로 아인슈타인의 등가원리를 예로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 의하면 E=mc<sup>2</sup>으로 이는 질량 m이 에너지 mc<sup>2</sup>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질량과 에너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질량-에너지 등가법칙). 따라서 조건만 맞으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되면 열이



양형진 교수



박영준 교수

발생하는데 이 열에너지는 탄소와 산소에 있던 질량이 변한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핵융합과는 달리 결합 전후의 질량차가 너무 작아 측정할 수 없을 뿐이다.

이는 반응 이전에 탄소와 산소의 질량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이 반응 후에는 에너지로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 교수는 "에너지가 없어져야 입자가 생겨나고 입자가 없어져야 에너지가 생겨나므로 생과 멸은 언제나 함께 공존해 있다"며 "생과 멸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 즉 불이(不二)로 표현될 수 있고 이를 물리학에서는 '보존'으로 불교에서는 '불생불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생과 멸이 분리될 수 없으니 멸이 곧 생이고 생이 곧 멸이어서 생멸이 원융해 쌍조가 되고 생멸이 사실상 없으니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어서 생과 멸이 함께 사라진다 생차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양 교수는 또 "성철 스님은 근본불교에서 천태, 화엄, 선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를 중도로 이해·설명하고 있다"며 "이는 '부처님은 양변을 버린 중도를 정각했다'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

고 그 가운데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등 '초전법륜'의 중도 선언과 <숫타니파타>의 피도안품, <가견연경>을 활용해 설명한 스님의 법문에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논평에 나선 서울대 박영준 교수는 "불생불멸의 중도사상이 현대 과학과 잘 일치하고 있고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불교가 과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수학에 근거한 서양과학의 전통은 불교의 존재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양자를 유위법에 투영해 비교·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과학은 엄격한 수학적인 관측에 의해서 누가 그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무오리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 진리인 불교와 연속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나의 마음, 사물 등이 우주의 연기(緣起) 속에서 존재한다는 성철 스님의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고, 들리는 모든 소리가 묘한 이치로다. 보고 듣는 이것 밖에 따로 진리가 없다'는 법문은 경험적 진리일지는 모르나 과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불생불멸, 색즉시공 등의 불교적 진리는 양자역학, 소립자학 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보편적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와 참나를 찾는 불교가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기술·논증될 수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sasamin@buddhapia.com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1>

### 법성계의 과학

법성계는 화엄사상의 정수를 가장 잘 표현한 신라 의상대사가 지은 시(詩)다. '법성원용 무이상'으로 시작해서 '구래부동명위불'로 끝나는 아름다운 계송이다. '우주 존재의 원래 성질이 동일고 화합해 있고 두 가지 극단에 있지 않다는 것, 이러한 진리가 오래 전부터 움직이지 않고 존재하며, 이를 부처라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전부터 인도에서 존재하던 가타라고 불리던 계송이 이렇게 한자로 변환돼 지금껏 전해왔다. 화엄사상의 '우주 삼라만상이 서로 다른 것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고, 생과 멸 또한 상호 변환되는 상태일 뿐'이라는 내용은 현대물리학의 존재론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죽으면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는가. 아마 해답은 바로 '불수자성 수연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그리되는 것이다. 나의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이 아픔을 느껴야 더 잘 지탱하도록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외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할 수 없으니까 되어 있는 인연의 과학 때문이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역시 그렇게 두려워하도록 된 인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진흙을 더럽다고 느끼는 것 또한 진흙 환경에서는 미생물의 공격에서 의해서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진흙에서 생존하는 수많은 생명체에게는 진흙이 가장 깨끗하듯 고편안한 곳임에도 말이다. 이와 같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 죽고

### '불구부정'인데 왜 더러운 것은 싫은가? 무상 속 인연의 나뉠일 뿐임을 알아야

요즘 필자의 가슴을 울리는 문구는 법성계 중 '불수자성 수연성(不守自性 隨然成)'이라는 문구다. '자성은 지키지 않으면서,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말이다. 앞줄달출한 말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지혜가 담긴 말이며, 놀라운 과학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불자이든 아니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반야심경의 '불구부정'이다. 즉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교의 상징인 연꽃은 더러운 속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부처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진흙을 더럽다고 하는가. 반야심경에서는 불구부정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비슷한 질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깨달은 자들은 왜 몸이 아픈가. 아프다고 왜 병원에 가는가. 불생불멸이라고 하면서 왜 동료가

사는 것에는 결코 원래 그러한 성질, 변하지 않는 성질이 없다. 단지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법칙 그리고 주어진 인연법칙(아니면 과학법칙)내에서 만들어진 인연의 나뉠(manifestation) 뿐만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자성이 없다는 것은 현대 과학의 결과로도 일치한다.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의 상호 변환, 소립자의 탄생과 소멸은 어떠한 우주의 존재도 원래 변하지 않는 성질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죽음이 어찌 삶과 다르고, 그림자가 어찌 빛과 다르겠는가. 아니 두개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한 중도의 원리인 지 모른다. 늦가을, 다시 필 불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무를 보면서, 법성계를 다시 한 번 음미해 봄은 어떨까.

서울대 전기공학부

thanks!



그림: 문병성

## 화엄사상 극명히 드러낸 걸작

오진희 연구원 '화엄사 대응전의 삼신불' 논문 발표

"구래 화엄사 대응전 삼신불은 조선 시대 유일의 삼신불로 이에 대한 면밀한 도상·양식 분석이 시급하다." 한국미술사연구소 오진희 연구원(사진)은 최근 논문 '화엄사 대응전의 삼신불상'을 발표했다. 오 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삼신불의 조성배경과 양식적 특징

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오 연구원은 "화엄사 사적기는 화엄사 불사 제작 배경과 불교미술의 특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며 "특히 불상대화사로 활약했던 벽암 스님과 그 제자들이 화엄사 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불상대화사로 활약했던 벽암의 제자로 화엄사 불상 청탁만 아니라 해인사 법보전 중영 공사(1624년), 원주 송광사 불상 조성(1641년)에도 참여한 조선시대의 독특한 불상 양식을 시도했다.

화엄사 삼신불과 같은 형식은 조선시대 후반기 불화에서 중앙에 지권인과 불행 머리칼의 본존 비로자나불상을 봉안

하고 좌 설법인 증품중생인변의 보관형(머리칼) 노사(노수), 우 향마촉자인 불행 석가불을 모신 갑사 삼신배불탱, 개심사 영산삼신배불탱 등 삼신불형식이 보편적이지만 불상에서는 그 예가 드물다.

이와 관련해 오 연구원은 "이러한 불상은 조선시대 화엄종과 법화종의 융합으로 삼신불과 삼세불이 혼용되어 나타난 불상 형태로 보인다"며 "화엄사 대응전 삼신불상은 삼신삼세불이 융합한 이 시기에 화엄 사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자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차분 완대로 인하여 3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지에 빠져서 평생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떨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깝게 실린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재의 수량도,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를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미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